

## 인술을 펼칠 공간은 어디인가?

(의료 사고 1)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크건 작건 간에 의료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은 담당 의사가 매우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발생한다. 인간의 출생과 사망이 대부분 병원이라는 인위적인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의 상황이므로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집 밖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객사(客死)라 칭하여, 고인이 가족에게 혹은 가족이 고인에게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임종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들은 그 시각을 정확히 예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임종하기 조금 전에 집으로 모셔 가겠다는 의미이겠다.

의학적인 지식의 기반 위에서 환자의 현 상태를 보아 ‘며칠 안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측이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설정되는 가정일 뿐이므로 그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얼마 전, 희생 불가능한 환자를 퇴원시켜 가겠다는 보호자를 설득하여 병원에 붙잡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검찰이 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한 일이 생겼다. 이 나라의 검사들은 의사들을 신격화(神格化)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살려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거야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감옥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희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가느다란 생명 줄 하나만을 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누어있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생사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물론 그들에게 “여기에 누어서 더 오래 살고 싶으냐, 집에 가서 편하게 죽고 싶으냐?”를 물어 본다면 “어떻게 하든 계속 살고 싶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는 곧 비용의 문제이다.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가 기거할 곳이라고는 병원 안에서도 중환자실뿐인데, 그곳에 입원하여 반년이나 혹은 일 년 여 이상을 버텨야 한다면 그것은 곧 나머지 가족의 파산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 적기에 열심히 치료하면 백 퍼센트 희생이 가능한 환자를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렁 퇴원시키는 의사는 사실상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희생할 수 없는 환자를 계속 생명 줄 하나만 유지하고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에 가서는 “돈 벌어먹으려는 병원의 수작”이라

는 악의에 찬 비난을 듣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자는 죽고 나머지 가족은 거리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총체적인 보장이 아니라 '의료할인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 주의 케보키언(Jack Kevorkian)이라는 의사는 '안락사'로 유명하다. 그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살인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그는 1998년 11월 한 사람의 환자를 안락사시킨 후 그 장면을 녹화한 테이프를 방송사로 보낸 후 더 유명해졌다. 지금까지 약 130명의 안락사를 도와준 그는 시한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구원 천사라는 추앙을 받는다. 하던 동시에 살인 기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케보키언 같은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아마 나라 전체가 벌떡 뒤집혀 버릴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상황은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 하여도 일단 환자가 죽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치도곤을 하니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눈치를 보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 밖에는 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막 의사 생활을 시작했던 이십 여 년 전, 사망한 환자의 장례를 치른 보호자가 조용히 찾아와 그 동안 너무 고마웠노라고 양말 세트 하나를 건네주던 때의 향수를 잊을 수 없다. 지금은 그저 눈알을 부라리고 방어하기에 바쁘다. 허준 신드롬이 전국을 메아리쳐도 지금 우리나라엔 인술(仁術)을 펼칠 공간이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